

맥주, 웰빙 확산으로 안마신다!

주류협회, 1-4월 5574만상자로 7.3% 감소 ... 하이트 62.3% 점유

2006년 들어 맥주 소비량이 크게 줄고 있다.

대한주류공업협회 집계 결과, 2006년 1-4월 맥주 출고량은 5574만상자(500ml 짜리 20병 기준)에 그쳐 2005년에 비해 7.27% 줄었다.

맥주 출고량은 2000년 11.29%, 2001년 8.04%, 2002년 2.42% 늘어나는 등 2000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2003년 3.66%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.

2004년 1.96% 증가했지만 2005년에는 4.26% 줄었다.

주류기업들은 술 소비 감소는 웰빙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경기침체, 양극화에 더해 주5일 근무제 확대 등이 겹치면서 술을 덜 먹는 풍조가 확산되는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.

한편, 하이트, OB맥주 양사 경쟁체제인 맥주시장에서 하이트가 1/4분기 62.27%의 점유율로 1993년 출시 이래 처음으로 점유율 60%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.

하이트는 4월에도 59.91%의 점유율을 기록해 2006년 1-4월 점유율 61.68%로 60%대를 유지했으며, 특히 병맥주 시장에서는 70.8%의 점유율을 나타냈다. <저작권자(c)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5/30>